



17세기 초 퇴계학파 월천계의 동향과 구전 김중청의 활동*

박인호**

1. 머리말
2. 김중청의 학문 연원과 교유관계
3. 17세기 초 월천계의 동향과 월천 추승
4. 복인정권과의 관계와 월천계 내 위상
5. 맺음말

요약

이 논문은 17세기 초 퇴계학파 월천계의 동향 속에서 월천 조목의 수문이었던 구전 김중청의 활동을 살펴보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구전 김중청(1567~1629)은 퇴계학파의 재전 제자로, 조성당 김택룡과 함께 월천 조목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월천의 제자들은 스승의

* 이 논문은 <보백방 김계행의 청렴정신과 그 전개> 주제로 2017년 4월 25일 한국국학진흥원이 주최하였던 2017년 한국학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朴仁鎬, 금오공과대학교

언행과 행적이 퇴계 학맥의 수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1614년 퇴계를 주향으로 모신 도산서원에 월천의 단독 종향을 이루어 내고 이를 예천의 정산서원과 봉화의 창해서원으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중앙에 진출한 월천계의 친대북적인 정치 성향으로 인해 향촌에서는 차츰 고립되어 갔다.

대북정권과의 협력 속에서 월천의 추송과 종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간 이가 김종청이다. 이 역할로 인해 비록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언급이지만 퇴계의 도통이 월천 조목에게 전해지고 월천의 학맥이 구전 김종청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실제 활동에서도 김종청은 월천의 학문을 이어갔으며, 말년에는 구미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 활동으로 월천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문인을 거느리고 있다. 김종청은 명실상부한 월천계의 적전이자 월천계의 학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종청은 월천의 도산서원 종향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정권에 협력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그다지 대북정권에 밀착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의 봉화금씨, 한국의 예안김씨 등과 함께 차츰 대북정권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월천계는 대북정권의 붕괴 이후 지역에서의 기반이 적지 않게 퇴락하였으나 김종청의 1831년 반천서원 제향에서 보이듯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지역에서의 월천계 학맥의 동향과 전승은 여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학적 과제이다.

주제어

: 김종청, 조목, 김택룡, 북인정권, 퇴계학파

1. 머리말

구전苟全 김종청金中淸(1567[명종 22]~1629[인조 7])은 퇴계학파의 재

전 제자로, 조성당 김택룡과 함께 월천 조목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월천의 일부 후학들이 광해군대 대북정권에 참여하였다가 대북정권의 몰락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배척되면서 오늘날 당시 월천계의 동향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기존의 김중청에 대한 연구는 그 사상사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천록』을 바탕으로 하면서 북경으로의 사행 당시 허균과의 갈등 양상을 소개한 논문¹과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에 대한 발표²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광해군대 집정 속에서 월천계의 활발한 중앙 관계 진출과 일부의 친대북적 성향으로 인해 월천계 전체가 친북인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월천의 수문인 구전 김중청도 월천계 내 친북인 강경파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구전 김중청의 정치 활동과 남겨진 언사를 통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는 17세기 퇴계학파 내에서의 갈등과 월천계의 분화 속에서 월천계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김중청의 활동과 월천계 내에서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김중청의 생애를 볼 수 있는 자료로는 문집과 『조천록』 그리고 『강일일록』을 들 수 있다.³ 상대적으로 영성하게 남아 있지만 월천계 후학

1 박현규, 『金中淸의 『朝天錄』과 부정적인 許筠 모습』, 『열상고전연구』 22, 2005; 서인범, 『金中淸, 『朝天錄』의 사료적 가치』, 『梨花史學研究』 51, 2015.

2 김세현, 『구전 김중청공을 통해 본 임진란과 복구활동』, 『봉화지역의 임진란사 연구』, 임진난정신문화선양회, 2016년 10월 12일 발표.

3 김중청, 『苟全先生文集』 1·2, 韓國歷代文集叢書 2245·2246·1997(金中淸, 『苟全先生文集』, 苟全先生文集國譯重刊推進委員會, 1999); 김중청, 『구전선생문집』,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續 14, 민족문화추진회, 2006; 김중청, 『조천록』, 임기중편, 『燕行錄全集』 12·23,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김중청(김세현 역), 『구전선생강원일록』, 반천서원복원추진위원회, 2007.

들의 문집과 『계암일록』, 『조성당일기』 등 동시기에 활동하였던 인물들이 남긴 일기 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였던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의 월천계의 동향과 구전 김중청의 활동 양상을 구명하고자 한다.

2. 김중청의 학문 연원과 교유관계

1) 김중청의 생애

김중청의 자는 이화(而和), 호는 구전(苟全) 혹은 만퇴(晩退)이다.⁵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1566년(명종 21) 12월 20일 봉화현 만퇴리(晩退里)에서 태어났다.

안동김씨의 시조는 김선평(金宣平)으로 고려 때 벽상삼중대신 태사(壁上三重大匡 太師)를 지냈으며, 대사간을 역임한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은 공의 5대조이다.⁶ 공의 선대 집안은 대대로 안동부 풍산현에 세거하여 왔다. 영해 교수를 지낸 승의랑(承議郎) 김세은(金世殷)에 이르러 군위(軍威) 응곡리(凝谷里)에서 봉화 만퇴리로 옮겨와 자리 잡았다. 조부 놀암(訥巖) 김정헌(金廷憲)은 성균관 진사가 되었으며, 퇴계의 문인이었다. 아버지 김몽호

4 김중청의 생애에 대한 설명은 『구전집』 수록 「연보」와 「행장」을 기초로 하였다.

5 구전은 광해군의 혼조에 녹봉으로 봉양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구차하게 보전하는 의미의 구전을 호로 하였다. 만퇴는 태어난 곳의 지명인 봉화현 만퇴리의 지명에서 호로 가져왔다.

6 최은주, 『보물은 오직 청백뿐, 안동 보백당 김계행 증가』, 예문서원, 2013.

金夢虎는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어머니 반남박씨(潘南朴氏)는 좌의정 박은(朴暉)의 현손인 충의위 박승인(朴承仁)의 딸이었는데, 박승인은 스승인 소고 박승임의 형이었다. 형제로는 김득청(金得淸)과 김수청(金守淸)이 있었다. 서인계의 대표적인 척화론자인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과도 친척이 된다.

첫째 부인은 장수황씨(長水黃氏)로 익성군(翼成公) 황희(黃喜)의 현손이었으며, 둘째 부인은 영천이씨(永川李氏)로 봉사 이영승(李永承)⁷의 딸이었다. 아들은 주민(柱旻)·주국(柱國)·주우(柱宇)·주한(柱漢)·주연(柱衍)·주미(柱美) 6형제를 두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종개(柳宗介)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참모(參謀)로 종군하였다. 대장(大將) 유종개(柳宗介), 집사(執事) 김인상(金麟祥)·윤흠신(尹欽信)·윤흠도(尹欽道), 군관(軍官) 권경(權擎) 등이 전투 중 사망하자 봉화의 진은 재정비되어 임흘(任屹)이 의병대장, 김용(金涌)이 좌부장, 이화(李嶰)가 우부장, 김종칭이 참모와 서기를 담당하였다.⁸ 김종칭은 군무를 담당하면서 서 의병대장과 관찰사에게 편지 올리는 등의 일을 처리하였다.

향촌에서 수학하던 시기에는 월천 조목을 옆에서 모시고 학문을 익혔다. 1606년에는 집에서 1리쯤 떨어진 반은동(槃隱洞)에 서재를 지었다. 은거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610년 문과에 합격하면서 중앙 관직 생활이 시작되었다. 한성부참군(漢城府參軍)을 시작으로 1613년 예조정랑겸지제교(禮曹正郎兼知製敎)에 임명되었다. 1614년에는 천추사겸사은사(千秋使兼

7 李永承은 察訪 李賢俊의 손자이자, 陽谷 李國樑의 아들이다. 이영승의 자는 公述, 관은 奉事에 이르렀다(『永川李氏族譜』 권3).

8 『구전집』 권4, 「소」〈壬辰義兵時擬上疏〉.

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에 갔다가 이듬해 북명하였다. 당시 사행 정사는 허균許筠이었는데, 일을 행하거나 비밀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중청과 충돌이 심하였다.

당시는 광해군 집권기로 북인계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집권 북인계 관료들은 월천 문인들을 시험하기 위해 김중청을 1615년 사간원 정언에 임명하여 폐모론에 반대했던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을 탄핵하는 논의를 발의하도록 하였다. 김중청金中淸·이익李瀆·금개琴愷가 작성한 초안에 대해 대사헌은 오히려 더 강한 내용을 주문하였다. 김중청은 이익李瀆과 함께 정계停啓하자는 논의를 발의하여 집권층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다.⁹

이에 부친 봉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면서¹⁰ 지속적으로 지방관을 구하던 중 경상좌도慶尙左道 시관試官으로 차출되었다.¹¹ 9월 경상우도 시관으로 바뀌어 파견되어¹² 고향 근처로 오게 되면서 한강寒岡 정구鄭述, 회곡晦谷 권춘란權春蘭, 백암 김륵, 여헌 장현광 등을 방문하였다. 좌우도 시관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명하기도 전에 고령현감에 제수되었다가, 북명 후 1615년 신안新安(星州) 현감에 임명되었다.¹³ 1619년 8월 대간의 탄핵을 받아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계장동桂場洞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다.¹⁴ 1621년 고향에 구미당九未堂을 완성하여 은거할 집을 마

9 『苟全先生講院日錄』, <1615. 5. 11>.

10 위의 책, <1615. 5. 13>.

11 위의 책, <1615. 8. 29>.

12 위의 책, <1615. 9. 14>.

13 위의 책, <1615. 12. 21>.

14 『구전집』 권1, 「辭」<次歸去來辭 并序>.

련하였다.¹⁵ 9월에는 삼전실^{三全室}¹⁶을 완성하였다. 1622년 4월에는 선유사^{宣諭使}에 차출되어 영남 지역을 안찰하였다.¹⁷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내려왔다.

1624년 2월 이괄^{李适}이 난을 일어나자 의병장이 되어 행재소로 가다가 이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1629년 6월 13일 64살의 나이로 내성^{乃城}의 우사^{寓舍}에서 사망하였다. 9월 3일 봉화현 남면 태자산^{太子山}에 장사 지냈다.

2) 학문 연원

김중칭은 퇴계 이황을 사숙하면서, 소고^{嘯臯} 박승임^{朴承任}(1517~1586)·월천^{月川} 조목^{趙穆}(1524~1606)·한강 정구(1543~1620)를 스승으로 모셨다.¹⁸ 경학^{經學}의 정수^{精遂}는 조목에게서, 문장^{文章}의 오건^{奧健} 함은 박승

15 경북 봉화군 明湖面 豊湖里 餘浦마을의 苟全宗宅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8작 지방 건물로 이루어진 九未堂이 있다. 『연보』에서는 구미당의 당호가 慈未具(자애로움을 갖추지 못하고), 配未全(배우자도 온전히 못하며), 交未博(교유도 널리하지 못하고), 書未讀(책도 제대로 읽지 못했고), 學未就(학문도 성취하지 못했고), 道未修(도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居未定(거처도 안정되지 못하고), 仕未信(벼슬살이도 신임받지 못했고), 謗未止(비방도 그치지 않는다)의 선생께서 아홉 가지 일을 못한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적고 있다.

16 三全室 현판은 현재 구미당 건물에 같이 있다. 아마도 원래의 구미당에 별도의 한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다음 김중칭이 주로 기거하면서 그 정침의 이름을 삼전실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17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대 선유사 시기의 역할에 대해 각 기록에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광해군일기』 권176, 광해군 14년 4월 을유(20) 및 『계암일록』, <1622. 4. 23>·<1622. 5. 28>).

18 『嘯臯先生門人錄』(『소고선생문집』 『부록』); 『月川先生門人錄』(광산김씨 후조당 종택); 『檜淵及門諸賢錄』(후손가 발행).

임에게서, 예학禮學의 순수함은 정구에게서 물려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⁹

먼저 소고 박승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중청은 8살(1573, 선조 6) 때 부친의 명으로 소고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다. 1585년(선조 18) 무렵에는 창원부사로 재임하였던 소고에게 『한서』를 배웠다.²⁰ 1586년(선조 19) 때 소고가 사망하자 곡을 올렸으며, 1618년(광해군 10) 때는 『소고선생언행록』의 초를 작성하였다. 이듬해는 한강에게 소고의 묘갈명을 작성해 주기를 청하기도 하였다. 김중청은 스승을 위해 행장과 제문을 지었다.²¹ 김중청은 스승이 조정에서 두루 벼슬을 하였는데 그 동안 여러 사화가 일어났으나 홀로 참화를 면한 것은 일생 동안 청신하고 근직하였기 때문이라고 평하였다.²²

한편 월천 조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2살(1577, 선조 10) 때 월천에게 나아가 수업하였다. 당시 월천은 봉화현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김중청은 관아에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였다. 14살 때인 1579년(선조 12)

19 『구전집』, 〈苟全先生文集序[李光庭]〉, “外高祖苟全先生 私淑陶山之門人 盖嘗往來嘯臯月川寒岡三先生之門 一時之論先生者 謂經學精邃 傳鉢於川翁 文章奧健 承楷於臯老 而禮學純粹則襲訓於泗水也.”

20 『한서』의 수학시기에 대해 연보(『구전집』 『연보』)에서는 “檜山有感詩 自註云嘯臯朴先生由諫院左遷 來莅此府 余從學漢書于衙內 時乙酉春也.”(〈회산유감〉 시에 자신이 주를 달기를 소고가 사간원에서 좌천되어 이 부에 부임하여 왔을 때 현의 관아 안에서 『한서』를 배웠는데 그 때가 바로 을유년(1585) 봄이었다.”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박승임은 계미년(1583) 5월 공조참의를 시작하고 고향으로 왔다가 7월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으나 8월 창원부사로 임명되어 9월 부임하였다. 을유년(1585) 정월 아들 滌가 사망하자 2월 해직되어 돌아왔다. 따라서 『한서』의 수학 시기는 소고가 창원부사로 있었던 때인 20살 무렵에 배운 것으로 보인다.

21 『구전집』 권6, 「제문」 〈嘯臯先生祠廟〉·「행장」 〈嘯臯朴先生行狀〉.

22 『嘯臯集』, 「附錄」下 〈記聞錄〉, “先生歷事三朝 當乙巳己卯之歲 羣少釀禍 互相傾軋 清班縉紳之家 盡入於網打之中 而先生獨免慘禍者 蓋一生清慎謹飭之力也 門人金中清日錄.”

에는 월천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열었던 월천서당에 나아가 글을 배웠다. 월천서당에서 문하의 여러 학자들과 종유하게 되었다. 월천서당에서 동문수학한 신달도는 만사에 1596년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병신년 책을 깊어지고 천상에 가서 공부하면서 공을 알게 되었다. 서로 권하고 격려하여 깊이 마음을 합하였다. 나의 어리석음을 충고하고 나의 조급한 행동을 책망하였다. 학문의 연원을 캐어 멀리 이락까지 올랐으며, 시간을 아끼면서 예서를 깊이 탐구하였다.²³

1597년(선조 30) 정월에는 월천을 모시고 영지산(靈芝山)을 유람하였으며, 1601년(선조 34) 11월에는 월천을 모시고 청량산(靑涼山)을 유람하였다.²⁴ 1605년(선조 38)년 정월에는 월천이 아프다는 말을 동문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의원을 데리고 가서 병 간호를 하였다. 월천은 “평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볼 수 없었던 것이 한이 되었는데 이제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아쉬워하였다. 월천이 제자인 구전을 아낌이 지극하였음을 볼 수 있다.²⁵

1606년(선조 39) 10월 월천이 사망하자 제문과 만사를 지었다. 만사에서 퇴계가 돌아가셨으나 월천이 있어 하늘이 후생들로 하여금 유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적고 있다.²⁶ 1616년(광해군 8) 신안현

23 『구전집』, 「연보」.

24 위의 책 권5, 「記」〈遊靑涼山記 并序〉.

25 위의 책, 「연보」, “三十三年乙巳 先生四十歲 正月侍疾川上 同門報月川先生病篤 節迎醫住侍 月川執手曰常以居遠不得源源爲恨 今病且死矣奈何 其見愛重如此 已而月川病愈.”

감으로 재직시 고향 사람들의 논의를 모아서 봉화 창평리에 이황李滉을 제사지내고 조목趙穆을 종사하는 창해서원昌海書院을 세웠다. 1617년(광해군 9)에는 말미를 얻어 월천묘月川廟에 제사를 지내고 월천의 연보 초고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강 정구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구가 1607년(선조 40) 4월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선비들을 모아 『심경』을 강독하였는데, 김종청은 한강을 찾아가 뵈고 머물면서 강독에 참여하였다. 8월에 다시 가서 더 배우기를 청하였다. 1615년(광해 7)부터 경상도 일원에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사수에 들려 한강을 찾았으며, 신안(성주) 현감으로 재직시 한강이 내암 정인홍으로부터 역모 밀고를 받았으나 이를 중간에 무마하기도 하였다. 1620년(광해 12) 한강 사후에는 만사를 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강의 사당에 들려 제사를 지냈다. 제문에서 김종청은 정구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 나라의 운명이 쇠하려고 할 때에 선생께서 병이 드셨고, 유교의 바른 맥이 장차 떨어지려고 할 때 선생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 다시 대궐에서 호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인륜과 기강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의문을 질정할 곳이 없어졌으니 우리 후학은 슬프기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사양의 물가는 황폐하고 쓸쓸하며 매월도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공경심을 지니고 의리를 밝히시려고 평생 동안 힘을 쓰셨으며, 분류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가르침을 주시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호방하고 의젓하신 자질을 가지고 계셨으며, 영특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소자가 문하에 들어간 것은 많은 사람들

26 위의 책 권1, 「詩」〈月川先生輓 二首〉, “溪上人亡川上存 天教後死與斯文.”

보다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주의 수령으로 있던 4년 동안 곡진하신 가르침을 배블리 받았습니다.²⁷

김중청은 한강의 만년 제자이면서 또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제자였다. 한강이 65살 안동대도호부사에 부임하였을 때 42살의 김종청과 처음 만났다. 이에 대해 김시찬(金是瓚)은 공자 문하의 자유와 자로와 같았다고 적고 있다.²⁸

이외에도 김종청은 회곡(晦谷) 권춘란(權春蘭)(1539~1617)과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顛)(1540~1603)을 스승으로 모셨다. 김종청은 1615년(광해군 7) 이후 여러 차례 회곡 권춘란을 방문하였다. 권춘란이 사망하자 1617년(광해군 9)에는 부친을 뵈러가는 길에 조문하면서 자신과 회곡의 관계를 소자와 선생으로 표시하였다.²⁹ 후일 용산서원에 위패를 봉안하게 되었을 때 봉안문을 올렸으며, 회곡을 위한 상향 축문에서는 “인은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았고 학문을 오직 도를 구하였을 뿐이었네, 재능을 감추고 뜻을 돈독히 하였으며, 높은 지조는 잘 다듬었네.”라고 칭송하였다.³⁰

김중청은 필사본으로 남은 동강 제자들의 『급문록及門錄』에 등재되어 있다. 이에는 동강 김우옹이 안동부사로 부임하였을 때 문하에 왕래하

27 위의 책 권6, 「제문」〈祭寒岡先生文〉, “嗚呼 邦國欲瘁 先生病矣 道脉將墜 先生逝矣 叫閻未再 孰扶倫紀 就正無地 哀我後學 泗濱荒涼 梅園寂寞 持敬明義 平生着力 發揮分類 垂教膚公 豪毅之資 英粹之容 已矣難觀 視天夢夢 小子及門 三千之後 宰縣四載 飽蒙諄誘.”

28 위의 책, 「跋[金是瓚]」, “晚又出新安 從遊殆無虛月 自處孔門之游路.”

29 위의 책 권6, 「제문」〈祭晦谷先生文〉, “哭我小子 嗚呼先生.”

30 위의 책, 같은 곳 〈龍山書院晦谷先生奉安文 賜額周溪〉·〈晦谷先生常享祝文〉.

면서 배움을 얻었으며, 의보(儀甫) 이기옥(李璣玉) 등과 함께 학문을 익혔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³¹

3) 교유 관계

김중청의 다양한 교유관계는 문집에 남아 있는 시와 서간을 통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청년기의 경우 스승인 월천으로부터 이어지는 학맥으로부터 많은 교유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년의 관직 생활 때는 서울에서 북인계 관료들과 많은 교분을 가지게 되었다. 장년 이후에는 성주와 인동에 근거지를 둔 한강 정구 및 여현 장현광과 그 제자들과 밀접한 교유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교분이 있는 이로는 대표적으로 오천(외내)의 영천이씨를 들 수 있다.³²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오계정사(迂溪精舍)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장자인 선오당(善迂堂) 이시(李蒔, 1569~1636)가 오계서당을 재건하였는데 교유 인물을 적은 서당의 『강화록』에 김중청도 참여하고 있다.³³ 봉화현감 임혁과 김중청 집안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³⁴ 1608년 외내의 이시(李蒔), 이

31 『금문록』, 『동강선생전서』 6, 청천서원, 1995, 342쪽, “金中淸 字而和 號槃泉 又號草廬 安東人 居奉化 嘉靖丙寅生 己酉登文科 官至承旨 崇禎乙巳卒 公幼徒朴嘯阜承任受業 既而月川趙先生知奉化 公以親命就學 月川亟許之 戊子先生爲安東府使 公往來門下 質疑請益 與李儀甫諸人 講劇不解.”

32 외내의 영천이씨는 소윤공파(李賢佑)의 후손인데, 동생인(李賢俊)의 증손녀 사위가 김중청이어서 인척으로 연결된다(『永川李氏族譜』 권1·3).

33 『善迂堂先生逸稿』, 『부록』〈迂溪書堂講話錄〉.

34 1607년 류형경의 아들(柳析)과의 다툼에 대신하여 나선 봉화현감(任奕)과의 갈등으로 봉화현감은 부친을 체포하여 형틀에 씌우고, 수령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김중청을

립李玢 등이 김중청을 구하기 위해 감사에게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³⁵ 다만 이 때 가까운 고을의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두 적어 연명하여 올렸는데 허락받지 않을 사람의 명단도 있어서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다.³⁶ 외내의 6형제 가운데 막내인 이모李慕는 구전의 문인이면서도 사위가 되었다.

중앙 관료로 근무할 때의 친우관계는 1614년(광해군 6) 천추사검사는 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 수도 북경으로 갈 때 조정의 친우들이 적어 준 시장詩章을 묶은 책인 『부경별장赴京別章』을 통해 볼 수 있다.³⁷ 『부경별장』에 수록된 시문의 순서에 따라 작자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대부분 중앙 관직에서 근무하면서 당색과는 상관없이 친하게 지내었던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당시 주요 관직 재직자들이었다.

임숙영은 서문에서 김중청을 알고 지낸지 20년이 되었는데 영남지방에서 배출된 인물 가운데 문장과 행실에게 김중청보다 나은 이가 없으며, 사람들은 시詩와 문文을 분리하여 놓고 견할 수 없음을 괴로워 하지만 김중청은 높은 안목으로 직시하여 어려움 없이 글을 지어 시와 문을

잡아오도록 하였다(『溪巖日錄』, <1607. 8. 11>·<1607. 8. 18>). 이해 11월 봉화현감을 피해 부친은 濫溪로, 김중청은 외천의 영천 이씨 집으로 피신하였다(『계암일록』, <1607. 11. 10>).

35 『계암일록』, <1608. 4. 15>.

36 위의 책, <1608. 8. 5>·<1608. 8. 11>.

37 『赴京別章』, 한국국학진흥원, 2004. 1904년 김형상이 쓴 제첩후기에 따르면 김형상은 구전의 후손인 金洛鎭의 요청에 따라 상하 2질의 책으로 粘帖된 것을 3책으로 분책하여 장정하였다. 『부경별장』은 문집에 <燕行贈遺>로 축약 수록되었다(『구전집』, 『부록』 <燕行贈遺>). 이에는 친구인 任叔英의 서문과 말미에 1788년(정조 10) 李光庭이 쓴 跋文이 추가되어 있다. <詩章>에는 沈喜壽·李好閔·柳根·李時發·金尙容·金尙憲·金涌·車天輅·李舜民·李竣·曹友仁·金垓·金奉祖·李景義·李明漢·權來·金繼宗·金光懋·金是柱·李弘重·李之馨·朴守緒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표 1〉 『부경별장』을 통해 본 교유권

이름	본관	자	호	제향처	비고
沈喜壽	靑松	伯懼	一松	상주 봉암서원	좌의정, 시호 文貞
李好閔	延安	孝彦	五峯	지례 도동서원	좌찬성, 시호 文僖
柳根	晋州	晦夫	西峒	괴산 화암서원	좌천성, 시호 文靖
李時發	慶州	養久	碧梧		형조판서, 시호 忠翼
趙存世	楊州	善繼	聽湖		공조참판
朴漉	潘南	子澄	蟠谷		의금부도사
金緻	安東	士精	南峰, 深谷		경상도관찰사
金尙憲	安東	叔度	淸陰	양주 석실서원 외	영의정, 시호 文正
金涌	義城	道源	雲川	안동 덕봉서원 외	병조참의
車天輅	延安	復元	五山		봉상시 첨정
裴大維	金海	子張	慕亭		병조참의
李舜民	全州	嶧如	淸狂, 伊峰		울산부사
柳活	興陽	源叔	泰宇		이조정랑
成以敏	昌寧	退甫	三古堂		공조정랑
李垓	興陽	叔平	蒼石	상주 옥성서원 외	대사간
朴鼎吉	密陽	養而	凝川		병조참판
宋光啓	冶爐	君沃	龍溪		사정
邊應垣			九江		
金頊	安東	汝慎			
曹友仁	昌寧	汝益	峴南, 梅湖, 願齋		
琴愷	奉化	彦康	望月軒		헌납
李尙伋	星州	思彦	習齋		증 이조판서, 시호 忠剛
李景稷	全州	尙古	石門		강화유수, 시호 孝敏
任叔英	豐川	茂淑	疎庵		부수찬
楊萬古	淸州	道一	鑑湖, 遯湖		군자감정
朴守緒	咸陽	景承	尤溪	순흥 도고서원	우승지
崔挺雲	水原	英望			
曹應休	昌寧	德符	漢彦		현감
金廷益	慶州	士謙	得地		
黃中允	平海	道光	東溟		좌부승지
金玲	光山	子峻	溪巖		증 도승지, 시호 文貞
全以性	竺山	性之	雲溪		함천군수
鄭遵	海州	行之			이조정랑
安崇儉		伯恭	五芝		찰방
朴善長	務安	汝仁	水西		예안현감, 경상도사

이름	본관	자	호	제향처	비고
任 屹	豊川	卓爾	龍潭		동몽교관
金尙容	安東	景擇	仙源	강화 충렬사 외	이조판서, 시호 文忠
吳汝楨	高敞	景虛	敬菴		대구도호부사
金是柱	義城	以立	開湖		병부랑
金奉祖	豊山	孝伯	鶴湖		예조정랑
辛翰龍	鷲城		麟伯		
李景仁	延安	元之			
未詳					
李 慕	永川	孝思	益陽, 小白		
金滢相	光山				1904년 3책 분책 후 발문
金光燁	安東	晦卿	東林		광주목사
李景義	延安	子方	晚沙		이조참판
李明漢	延安	天章	白洲		대제학, 시호 文靖
權 點	安東	子興	鐵崖布衣		권주의 형
朴檜茂	潘南	仲植	六友堂	영주 산천서원	의금부도사
權黑主	安東	子止	春睡堂	영주 병남서원	
金繼宗	安東	孝叔			
安 悟	順興	而得			
權 來	安東	樂而	眞休子, 石泉居士	도계사	
吳 翕	高敞	景泓	思巖		
孫 祐	月城	以吉			
李之馨	眞城	汝薰			적성현감
李弘重	眞城		龜巖		
裴尙益	大丘	益哉	癡巖	천곡 봉계서원	진주판관
徐 兢					
朴惟一					
琴 援	奉化	道濟			
權在璣	醴泉				
權在璿	醴泉				
李榮國	永川				
未詳					
未詳					
李 慕					별도 시를 추가
李 慕					별도 시를 추가
金中淸					

겸비하였음을 칭송하고 있다.³⁸ 김중청은 이 시첩에 대해 “그 내용을 보니 간혹 웅색한 나에게 장황하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힘쓰게 하고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고 부끄럽게 여겨 격려하는 것이 나를 힘쓰게 하고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³⁹고 적어 중국으로의 사은 기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는 징표로 삼고자 하였다.

1615년 경상도 경시관과 신안(성주) 현감으로 내려오면서 김중청은 성주와 인동에 기반을 두었던 한강과 여현계 학자들과 교분을 넓혀나갔다. 김중청은 인동에서 강학에 주력하고 있었던 여현(旅軒) 장현광(張顯光)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학문을 구하였다.⁴⁰ 한강과 여현을 방문할 때는 그 제자인 김집(金湊)·장흥효(張興孝)·이운우(李潤雨)·최현(崔暉)·이언영(李彦英)·이탁(李濯) 등과 교분을 쌓았다. 이 시기는 김중청이 한강과 여현계 학자들과 교유를 통해 학적 기반을 넓힐 수 있었던 시기였다.⁴¹ 1618년(광해군 10)에는 상산의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를 방문하여 교분을 쌓았다.

이광정은 김중청의 교유관계에 대해 우복 정경세(1563~1633)·여현 장현광(1554~1637)·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석담(石潭) 이운우(李潤雨)

38 『구전집』, 「부록」〈燕行贈遺〉, [序(任叔英)], “草廬君余識之二十年矣 始者嶺南遊以其地饒英俊之產 若文與行孰爲愈 皆曰莫先草廬君 余私心竊異之(…中略) 自書契之創於天下 有韻者爲詩 無韻者爲文 詩文一也 不知者歧而二之 自限其能 而病其不可兼 獨草廬君崛起而高視 無嚴述作 何者非詩 何者非文 驅其異而反其同 炳炳烺烺 欲超軼近世而上之 以求合於古之人 草廬君之工於藝富於詞如是也.”

39 위의 책 권5, 「잡저」, 「跋」〈書赴京別章帖後〉, “第見其中 或有張皇於拙者 至加以不虞之辭 是亦勉而戒耳 引而進之 耻而激之 非勉戒余而何.”

40 김중청은 여현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는 문구를 귀거래사에 기록해 두었다(위의 책 권1, 「辭」〈次歸去來辭 并序〉, “挹旅老之高風 憶川師之達觀.”).

41 위의 책, 「연보」, 50살(1615)~58살(1623).

(1569~1634)·소암疎庵 임숙영(任叔英)(1576~1623)·계암溪巖 김령(金垓)(1577~1641) 등 여러 선비들이 김종청을 존경하는 벗으로 여기지 않은 이들이 없었으니 김종청이 그 때에 중히 여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적고 있다.⁴²

3. 17세기 초 월천계의 동향과 월천 추승

1) 서애와 월천의 대립

퇴계 이황에 의해 창도된 퇴계학파의 학맥은 월천 조목·서애 류성룡·학봉 김성일·한강 정구 등으로 계승되었다. 특히 월천·서애·학봉·한강계는 가장 많은 제자를 거느리며 세력화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월천은 1538년 15살 때 퇴계를 스승으로 모신 이후 스승이 사망하는 1570년까지 30여 년을 퇴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퇴계가 사망한 뒤에는 상을 주재하였으며, 스승을 애도하기 위해 1년 동안 베로 만든 띠를 매었으며, 3년 동안 잔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월천은 퇴계가 사망 후 도산에서 직접 강학을 열기도 하였다. 월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퇴계를 모시는데 일생을 보내었다. 학문적 자세도 스승을 이어 퇴계학을 심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⁴³ 따라서 월천은 퇴계의 여러 제자 가운데 학통을 잇는 제자로 이미 향촌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42 위의 책, 〈苟全先生文集序[李光庭]〉, “當時愚伏旅軒沙溪石潭疎庵溪巖諸賢 無不推先生爲畏友 則先生之見重於一時可知也.”

43 권오영, 「월천 조목의 언행과 학문성향」, 『국학연구』 28, 한국국학진흥원, 2015.

그러나 16세기 말부터 학파가 분기하면서 각 계열마다 갈등이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는 퇴계집 편찬과 주화오국 문제로 서애계와 월천계가 대립하였으며, 17세기 초 중반에는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차 시비로 서애계와 학봉계가 대립하였다.

퇴계가 사망한 직후인 1571년(선조 4)부터 문도들은 선사의 문집을 편찬 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서애와 학봉은 모두 사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집 편찬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문집은 월천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다. 서애의 절삭 주장이 있었으나 월천의 전고 수록 방침에 따라 초간본인 경자본이 1600년(선조 33) 도산에서 간행되었다.⁴⁴ 월천은 퇴계집의 판각으로 이제 퇴계의 적전(嫡傳)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비록 수록 원칙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되었으나 퇴계집의 편찬 주도권 다툼은 서애와 월천계의 대립 구도 속에서 양 파가 갈등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⁴⁵

서애계와 월천계가 문도간의 대립을 감정적 차원으로 끌어 올린 것은 ‘주화오국(主和誤國)’ 문제였다. 복인계인 이이첨(李爾瞻) 등에 의해 1598년(선조 31)에 시작된 류성룡의 온건한 한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은 9월 들어 성균관 유생 이호신(李好信)·문홍도(文弘道) 등에 의해 송나라

44 서정문, 『퇴계집의 초간과 월천 서애 시비』, 『복약사론』 3, 1993; 『조선중기의 문집편간과 문파형성』,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48쪽.

45 월천 조목과 서애 류성룡이 동문 수학한 사이이지만 학문에서부터 정치적 성향과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에서 그 차이점을 드러내는 연구가 일반적이다.

서정문, 앞의 논문, 1993; 이수진,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학맥』, 『한국의 철학』 23,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5; 정만조, 『월천 조목과 예안 지방의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 28,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0; 설석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필사본 월천선생문집 해제』, 『국학연구』 5, 한국국학진흥원, 2004.

때 충신 악비(岳飛)를 죽이고 화친을 추구하였던 진희(秦檜)와 같은 간신배로 몰아붙이면서 본격화하였다. 이들은 류성룡이 ‘화(和)자로 국가의 대사를 그르쳤으며, 정인홍이나 조목과 같은 인재의 등용도 막았다고 지적하였다. 주화오국으로 계속 상소가 일어나면서 류성룡은 12월 삭탈 관직되었다. 그런데 조목은 이 탄핵 이전인 1597년(선조 30) 이미 류성룡에게 상국(尙國)에서 성현의 책을 읽고 배운 것이 오직 ‘강(講)하오국(講和誤國)’ 네 자 뿐인가라고 비판하고 있다.⁴⁶ 그런데 류성룡으로서는 동문의 인사로부터의 오국(誤國) 비난을 받은 것은 큰 충격이었다.

월천이 사망하자 문인인 김택룡이 『월천언행록』을 지었는데 월천이 서애에게 강(講)하오국(講和誤國)한다고 비판하였던 1597년의 편지를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었다. 1660년대 조목의 외손인 김확(金確)이 언행록을 보여주면서 동계 정온(鄭蘊)에게 월천의 신도비문을 청탁하였다. 정온은 신도비문 끝에 이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서애에게 알려지면서 월천계와 서애계는 본격적으로 대립 구도속에 빠져들었다. 당시 서인의 집정으로 복인과 연계되었던 예안의 월천계는 차츰 향내에서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오히려 서애계는 인조반정 이후의 친남인 정책에 따라 차츰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도비문의 내용은 두 문도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사 김응조는 이 문제에 대해 ‘주화오국’은 이이첨이 당시 류성룡을 비롯한 남인 당국자들을 악의적으로 정계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용한 문자인데 이를 월천계인 김택룡과 김확이 의도적으로 적어 놓아 논란이 분분해지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⁴⁷

46 『월천집』, 「부록」〈월천신도비명〉.

2) 월천에 대한 추승

1572년 4월 조목을 비롯한 예안 지역의 동문들이 도산에 서원을 건립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도산서당 뒤에 서원을 세울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서원 건립에 나서 1574년 7월 전교당을 준공하였다. 1575년 8월 서원을 낙성하였으며 선조가 한석봉에게 쓰도록 한 도산^{陶山}으로 사액을 받았다. 1576년 2월에는 묘우인 상덕사를 준공하고 퇴계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조목은 위패를 봉안하는 제문을 지었으며, 춘추 향사에 사용하는 축문을 지었다. 한편 도산서원이 건립되자 초기 원장은 대부분 조목의 문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하였다.⁴⁸ 자연스럽게 원생도 월천계로 채워지게 되었다.⁴⁹ 김중청도 1582년 입학하였다.⁵⁰

한편 월천의 사망 후 그의 월천계 문인들에 의해 광범위한 추승사업이 일어났다. 월천의 제자들은 3년 상이 끝난 1608년부터 바로 월천의 문집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은 박수겸^{林守謙}, 채간^{蔡衍} 등이 역동 서원^{易東書院}에서 시작하였으나⁵¹ 바깥의 여론 때문에 용수사^{龍壽寺}로 옮겨서 작업을 진행하였다.⁵² 이 작업은 김중청을 비롯하여 김택룡, 이덕

47 김응조, 『학사집』 권5, 「잡저」〈서애변무록〉.

48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97쪽.

49 김형수, 「17세기 초 월천학단과 예안지역사회의 재건」, 『민족문화연구』 65, 2014, 306~307쪽.

50 『遊院錄』, 도산서원, 〈1582〉.

51 『계암일록』, 〈1608. 11. 3〉.

52 김령은 김중청과 이립이 용수사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저들이 바야흐로 죄망에 걸려 있으면서 버젓이 모여드니, 아주 해괴하고 경악할 일이다.”는 여론을 전하고 있다(『계암일록』, 〈1608. 11. 28〉).

홍의 아들 6형제, 박수의, 박수겸, 채간 등 월천의 문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⁵³

월천 문집이 어느 정도 정비되자 월천의 도산서원 종향건을 추진하였다.⁵⁴ 종향건은 1609년 배용길(裴龍吉)이 처음 제기하였으며,⁵⁵ 1610년에는 도산서원 원장에 재임 중이던 금응훈(琴應薰)도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⁵⁶ 1611년에는 김택룡이 감사에게 정문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였다.⁵⁷

1612년에는 금경(琴敬)이 도산서원 원장에 취임하자 본격적으로 월천 종향건을 재론하였다. 1612년 1월 5일 도산서원에서 열린 알묘회에서 종향론을 중장하는 월천계가 회의를 주도하면서 2월 중정일에 월천을 도산서원에 종향하기로 결의하고 영천의 이산서원과 안동의 여강서원에 통문을 보냈다.⁵⁸ 이 일은 고향에 내려와 있던 김종청을 비롯하여 김택룡·금경·박수의·이립 등이 주도하였다.⁵⁹

이 결정에 대해 안동을 중심으로 한 의성김씨, 안동 유곡의 안동권씨,

53 서애계와 갈등을 빚은 내용을 거론하고 있는 金澤龍(1547~1627)의 『월천연행록』, 鄭蘊의 『월천신도비명』 등의 수록 여부로 서애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실제 문집의 간행은 1666년경 예안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양측의 합의에 의해 일부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는 내용은 삭제되고 6권 3책에 연보와 제문이 수록된 부록 1책이 추가되어 모두 4책으로 간행되었다. 그 뒤 일부 부분이 수정되어 개간본이 간행되었다. 한편 12권 7책의 필사본이 도산서원 광명실에 수장되어 있는데 목판 간행 이전의 교정용 필사본으로 간주되고 있다(설석규, 『해제』, 『월천선생문집』, 2004).

54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 논의 전말은 이상현, 『월천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논의 — 17세기 영남사족 동향의 일단』, 『북약사론』 8(2001) 참조.

55 『계암일록』, <1609. 1. 12>.

56 위의 책, <1610. 5. 10>.

57 위의 책, <1611. 1. 6>.

58 『操省堂日記』, <1612. 1. 5>.

59 『계암일록』, <1612. 2. 11>.

온계의 퇴계 후손, 예안 오천의 광산김씨 계열 인사들이 종향從享을 도통道統의 계승으로 간주하면서 크게 반발하였다. 각 서원이나 문중에서 보내 온 의견도 부정적이었다. 오천의 김령은 일기 기록을 남기면서 종향 당시의 여론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그는 이덕홍의 아들들이 퇴계의 도통이 조목에서 김종청,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어진다는 적전 의식에서 이러한 일을 꾸민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그들은 스승을 추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려는 술책에서 나왔다고 적고 있다.⁶⁰ 정구는 종향과 같은 중대사는 예조에 계품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⁶¹

이듬해인 1613년 4월 도산서원 원장 금경琴標과 이립李笠 등은 경상 감사 윤휘尹暉가 예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안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종향의 정문正文을 예조에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다.⁶² 당시 예조좌랑에 있던 김종청은 예조를 통해 주상에게 종향을 계품啓稟하였으며, 광해군은 ‘계啓’ 자를 적어 수의할 것을 재가하였다.⁶³ 김종청은 이광윤李光胤·박수의朴守誼·박수근朴守謹 등과 함께 영남 사람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여 다시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에게 올렸다. 그러자 영상 및 원임대신들이 모두 하나같이 재가해 줄 것으로 회계하였다.⁶⁴

종향의 건으로 1614년 1월 19일 안동 향교에 모여 가부를 결정하였는데⁶⁵ 참석자 82명 가운데 반대 22명 외는 모두 찬성하였다.⁶⁶ 이러한

60 위의 책, <1612. 2. 8>·<1612. 2. 13>.

61 위의 책, <1612. 2. 11>.

62 위의 책, <1613. 4. 28>.

63 위의 책, <1613. 6. 26>·<1613. 8. 5>.

64 위의 책, <1613. 8. 5>.

과정을 거쳐 월천을 도산서원에 종향하는 것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종향 관문이 9월에 도착하였다.⁶⁷ 김령은 중신 뿐만 아니라 정인홍·이이첨 등이 힘을 다하였고 조목의 문인들을 기용하여 이를 도모하였으니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하고 하면서 이강이 이이첨의 치질을 활음과 이광윤이 석광(碩光)에게 아부함과 김종청이 권세가와 안팎이 된 것과 이잠의 허장성세는 일일이 거론할 것도 없다고 한탄하였다. 도산서원 원장 김택룡은 회문의 도착을 계기로 절목을 상의하기 위한 회의를 9월 13일 개최하였다.⁶⁸ 11월 9일 도산서원에서 종향이 거행되었다.⁶⁹

월천계는 예천과 봉화에도 퇴계와 월천을 함께 모시는 서원의 건립을 통해 월천이 퇴계 학통의 적전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예천에서는 이광윤(李光胤)·박수근(朴守謹) 등이 중심이 되어 1611년 퇴계를 모신 정산서원(鼎山書院)을 세웠다가 1615년 3월 25일 월천을 종향하였다.⁷⁰ 정산서원은 1677년(숙종 3) 사액되었다. 봉화에서는 김종청 등이 중심이 되어 1616년 퇴계를 제사지내고 월천을 종사하는 창해서원(昌海書院)을 건립하였다가⁷¹ 1617년 9월 봉안제를 지냈다.⁷² 1694년(숙종 21) 문암서원(文巖書院)으로

65 위의 책, <1614. 1. 18>.

66 위의 책, <1614. 2. 4>.

67 위의 책, <1614. 9. 7>.

68 위의 책, <1614. 9. 7>.

69 위의 책, <1614. 11. 4>.

70 위의 책, <1615. 3. 26>.

71 『구전집』 권4, 「서장」〈爲昌海書院呈巡相啓〉; 같은 책 권6, 「제문」〈昌海書院尊德祠奉安祭文 賜額文巖〉·〈月川先生祔享尊德祠祭文〉; 같은 책, 「연보」〈四十四年丙辰先生五十一歲〉.

72 앞의 책, <1617. 9. 8>, “晴而風 午後伊溪金進士得研丈過 以廬江院長 往奉化 觀金中清輩昌海書院奉安祭而回也 祭日會者 禮安則琴憬李有道李之馨金取鄭得李向迪柳時元

사액되었다.

그런데 월천계는 도산서원에 종향을 이루어내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시켰으나, 중앙에 진출하였던 월천계의 친대북적인 정치 성향으로 인해 향촌에서는 차츰 고립되어 갔다. 이러한 시기 김중청은 김택룡과 함께 월천계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였으며, 문집 간행과 종향 추진 등 월천 추송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4. 복인정권과의 관계와 월천계 내 위상

1) 김중청과 복인정권의 관계

김중청은 월천의 문집 편집과 예조좌랑 재직시 월천의 도산서원 종향, 신안현감 재직시 창해서원 종향 등에서 보이듯이 월천에 대한 추송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월천의 도산서원 종향에는 서울에서 예조에 근무하면서 정문을 올린다거나 서울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올리거나 월천의 종향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等幾二十人 榮川則李崇道及其二子金汝燁汝煜及宋姓諸人凡十餘人 安東三四人率皆名不聞者 豐基亦然 醴泉金錫堅 其餘皆奉縣及奈城人也 奈城權尙賢亦往矣 此會者 皆中清之黨與 不然皆脅從或旅進 而其中亦有中無所主趨勢畏禍而赴之者 近境士子 稍號爲有識有聞者 皆不往矣 夫以先生書院 榮安禮三邑 自昔固有 而其他追建者 或于先生 有平日之緣 或出於欽慕而致誠 至若昌海 中清本意不在先生 只在於其師月川 而慮人心不服 借先生憑藉 而歸重月川 月川雖名從祀 其實主也 (…다略) 且其書院 創於十年前 士論皆云清也 構自己書院 中間經變故 久不就 至是乃逞其胸臆焉.” 창해서원이 건립이 쉽지 않았던 과정을 거쳤음은 김령에 의하면 서원이 10여 년 전에 창설되었는데 유립 여론은 김중청이 자기 서원을 짓는다고 여겼으며, 중간에 진행시키지 않다가 이제 그 속마음을 드러내었다고 적고 있음에서 볼 수 있다.

주장에 논박하는 등⁷³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복인의 집권 당로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일의 성사를 주도하였던 것도 사실이다.⁷⁴ 김령은 김종청을 영남 상도 출신으로 시류에 영합한 자로 거명할 정도였다.⁷⁵ 또한 복인정권에 밀착되었던 이덕홍의 자제들과는 혼인 관계로 맺어지고 또한 중앙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관리생활을 같이하였던 이립^{李笠}·이강^{李莊}·이점^{李岷}·이모^{李慕} 등 영천 이씨 형제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김종청은 복인정권 자체를 그렇게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당시 예안지역에서 대북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로는 외내의 영천이씨, 온계의 고창오씨, 서촌의 덕산윤씨 등이었다.⁷⁶ 오히려 선오당 이시^{李壽}처럼 영천이씨의 6형제 내에서도 대북정권에 한 걸음 물러선 이도 있다.⁷⁷

73 안동의 鄭土信이 조목의 배향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였다는 혐의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광해군일기』 권74, 광해군 6년 1월 정사[4일]). 김령은 이 논박도 실은 김종청의 힘이었다고 보고 있다(『계암일록』, <1614. 2. 4>).

74 대북정권의 월천 종향에 대한 지원과 예안내 대북세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이상현, 「월천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논의」, 『북악사론』 8, 2001; 박현순,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성우, 「광해군대 정치 지형의 변동과 경상도 예안 사족들의 대응」, 『역사학보』 226, 2015.

75 『계암일록』, <1615. 7. 12>, “是時嶺南上道之爲時輩者 淸愷垳及草頭輩 乃其魁 又有朴守緒群從 爲之表裡 緒爲禮郎 得拜淸職 如安聘壽辛義立金友益輩 不足道也.”

76 인조반정 직후 지역사회에서 毀家黜鄉되거나 削籍된 이들은 지역 단위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북 지지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계암일록』).

- 3월 28일 榮川 : 李莊·李藏·李榮久·琴大雅·李垳·李光啓·李光烈 [吳汝穩·金汝輝]
- 3월 29일 安東
- 4월 3일 禮安 : 孫祐 [吳籛·吳汝杠·尹東昌·尹東老·李弘益]
- 4월 5일 豊基 : 徐旒·南自新·李慕
- 4월 6일 온계 : 徐旒

77 외내의 영천 이씨의 경우 李笠·李莊·李藏·李慕 등이 적극적으로 대북정권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장남인 선오당 李壽와 4남 李茂는 대북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천 이씨 형제 내에서도 대북정권에 대한 자세가 다르게 나타난다.

김중청은 월천의 도산서원 종향 과정에서는 친북인계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대북정권에 그렇게 밀착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츰 부포의 봉화금씨, 한곡의 예안김씨 등과 함께 차츰 북인정권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1615년 정언으로 있으면서 이원익의 탄핵에 대한 북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가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지방관을 구하였다. 당시 북인계로부터 대북에 응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을 들었다.⁷⁸ 1616년(광해군 8) 1월 25일 신안(성주) 현감으로 재직할 때 합천에 있던 정인홍을 만나러 갔는데 정인홍에게 요즘 월천 문하에 말하기를 스승을 등져야 사귄 수 있다고 대감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문인들에게 선사를 배반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는 학술도 모르는 귀머거리나 장님과 같아도 청천백일을 청천백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면서 저는 월천을 독실히 믿고 있는데 어찌 선사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고 말하였다.⁷⁹ 1618년에는 사수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대북계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다.⁸⁰

조지형, 「선오당 이사의 창작 맥락과 양상」,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2015; 박현순,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234~240쪽.

78 『구전선생강원일록』, <1615. 7. 27>, “二十七日 壬申 晴 安君邵移寓徐義京家 聞李汝瞻言于景行曰 金兄不肯爲大北可恨云.”

79 위의 책, <1616. 1. 25>, “二十五日 丙申 晴 往左相宅 曉發飯于晴川精舍 擬往宿海印寺 蔡樂而及柱宇俱行至此 聞寺內病熾 蔡及柱兒還縣 余獨進 李弘緒趙元規等來在 行酌禮 盡飲十二杯 語及退溪先生事 余曰 今世之人以月川先生難以口舌爭一話頭 謂月川背先師交大監云 小生之意以爲以大監爲南冥盡誠發明之意 若月川背先師果如云云則 大監必不相許矣 如小生不知學術如響如桴而 尙知青天白日之爲青天白日 況我月川之篤信 豈有背師之理 但今人專不知是非曲直而 經先話辱長者之習則 固不當也 左相欣然甚可之 余出之後 語于弘緒等曰 新安之言快哉快哉云 日沒馳歸 夜分投宿新當里村家 乃李埴別舍而 埴則出在陝地 其弟埴塋等 納名招見之.”

예안에서의 친우이었던 김령도 종향 건이나 창해서원 건립 건, 그리고 광해군대 각급 관료 재직시에는 사건마다 김중청을 비난하였으나⁸¹ 인조 반정 후 봉화로 귀향한 후로는 김중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김령은 김중청이 죽은 후 만사를 작성하여 보내었으며⁸² 김중청의 아들과 좋은 관계를 지낼 뿐만 아니라, 김령의 자제가 김중청의 아들 김주우의 집에 출입하는 등 다음 세대도 좋은 관계를 이끌고 가고 있다.⁸³

김중청이 심한 정신착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고 있으며,⁸⁴ 김중청이 죽고나서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이복동생이던 김득청(金得淸)의 흉한 일이 드러나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을 겪었는데⁸⁵ 이에 대해서도 김령은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고 이 일을 현명하게 처리한 봉화 수령을 칭찬하고 있다.⁸⁶

김중청은 월천의 종향과 추송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계에 있으면서 복인의 힘을 빌리는 등 친복인적 자세를 취하였으나 이 일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차츰 복인과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조반정 이후 고향에 있으면서는 사이가 멀어졌던 예안 사족과의 갈등이 봉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0 『모당일기』, <1618. 12. 23>.

81 예안 사족 사회의 위계질서를 복인정권에 대한 태도와 결부한 김성우의 연구에서는 김중청을 친복인 강경파로 간주하고 있다(김성우, 앞의 논문, 139쪽).

82 『구전집』, 『附錄』〈輓詞[金垓 溪巖]>.

83 『계암일록』, <1638. 1. 3>·<1640. 5. 8>.

84 위의 책, <1628. 11. 5>.

85 『인조실록』 권23, 인조 8년 9월 계묘(27).

86 『계암일록』, <1630. 3. 15>.

2) 월천계 내 위상

김중청의 문집에는 23분이 쓴 만사와 제자들이 만든 제문이 있다. 김중청 사후 이증효李曾孝·남형회南亨會·박돈朴燾·배숙전裴淑全 등 문인들이 공동으로 올린 제문에서는 스승인 김중청의 일생을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은 소회를 적고 있다.

뜻밖에도 병에 걸리셔서 마침내 치료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시골에서는 모범이 될 만한 분이 없게 되었고 나라에서는 자문 역할을 할 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주관하는가 귀신이 주관하는가. 하늘에 물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슬프도다, 우리 무리의 소자들은 다행히도 선생의 강당에 의탁하였는데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여 학문의 방향을 알게 하였으니,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은혜는 의리가 어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으니 학업을 어디다 질정을 하겠습니까? 서로 쳐다보면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러내립니다.⁸⁷

친구이자 사돈이기도 한 이시李蒔는 구전의 학문에 대해 “학문에서 연원이 있어 명망은 동방에 알려졌다. 유림의 마루가 될 만하고, 나라의 기강을 부축할 만하다.”⁸⁸고 적고 있다.

한편 주위에 있던 친우들은 구전이 사망하자 만사를 작성하여 보내 주었다. 만사 작성자인 김상용金尙容·박정선朴鼎善·이호민李好閔·박동선

87 『구전집』, 「부록」〈祭文[門人李曾孝南亨會朴燾裴淑全等]〉, “何意一疾 竟至難醫 鄉無矜式 國失耆龜 人耶鬼耶 問天莫知 嗚呼痛哉 吾儕小子 幸托鱣堂 不我慳慳 誘我知方 作成之恩 義同爺孃 遽隔幽明 質業於何 相向失聲 涕淚傾河.”

88 위의 책, 같은 곳 〈祭文[李蒔 善迂堂]〉, “早得依歸 溪月波光 學有淵源 名擅東方 儒可爲宗 國可扶綱.”

朴東善·배상익(裴尙益)·도어유(都汝兪)·권익창(權益昌)·목장흠(睦長欽)·김광현(金光炫)·
 신달도(申達道)·권굉(權宏)·김령(金玲)·유진(柳軫)·박록(朴漣)·목성선(睦性善)·황호(黃
 厚)·고인계(高仁繼)·김광혁(金光赫)·유석(柳碩)·유영(柳穎)·김득연(金得研)·김휴(金休)·
 김울(金瓌) 등은 모두 당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작성한 만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상용은 “일가 중에 다행하
 게도 공같이 어진 분이 있었네.”고 적어 일족의식을 보여준다. 신달도
 는 “근원을 궁구하며 멀리 이락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훈과 치를 예서
 에서 깊이 비교하였다. 상대방도 장부이고 나도 장부라 여기며 선진의
 자취를 따랐지만 힘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함이며, 세월이
 빨리 지나감이 애석하다.”고 학문을 같이 한 동지임을 밝히고 있다.
 김울은 “월천 문하에서 함께 학업을 닦을 제, 당시 재주와 학문은 공을
 가장 칭송했었지. 문장은 여사로 부질없이 무리에게 친해졌고, 도의는
 감화를 이루어 못 어리석은 이를 깨우치게 하였네.”라고 월천 문하에서
 공의 재주와 학문이 가장 뛰어났음을 적고 있다.⁸⁹

연보와 행장에서 구전의 문장과 경술은 동류⁹⁰ 가운데 가장 으뜸이
 었다고 적고 있다.

선생의 문장(文章)과 경술(經術)은 동류들에게 있어 으뜸이었다. 본래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할 뜻을 지녔지만, 혼탁한 조정을 만나

89 위의 책, 같은 곳 〈만사〉, “同宗何幸有公賢(金尙容).”·“窮源遠派於伊洛 分寸深較於
 禮書 彼丈夫我丈夫 追武前脩 懼力不任分 惜居諸(申達道).”·“共立川門雪白中 當時才學
 最稱公 文章餘事空流輩 道義薰成擊羣蒙(金瓌).”

90 김형수는 광산김씨 후조당 소장 『月川先生門人錄』과 權是中, 『樸亨逸稿』, 『附錄』
 〈同門錄〉을 종합하여 32명을 동문제자로 정리하였다(김형수, 『17세기 초 월천학단과
 예안지역사회의 재건』, 『민족문화연구』 65, 2014, 299~304쪽).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조가 반정한 뒤에는 또 유언비어에 의해 여러 차례 모함당하는 바가 되었다. 선생이 효상을 관찰하고 점을 쳐보고는 전원에서 여유있는 생활을 하며 생도들을 가르치는 것을 즐기며 근심을 잊고 있었다. 우복 정경세는 매번 선생과 함께 경연(經筵)에 오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으며, 사계 김장생은 매번 선생의 예학(禮學)에 미치지 못한다고 탄복하였다.⁹¹

당시 사우가 월천 선생 문하의 선비들을 폄평하면서 번번이 제일 먼저 공을 꼽았다.⁹²

류성룡계인 오친의 김령은 비록 종향 논의과정에서 김중청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월천계의 적지 않은 후학들이 월천의 도통을 구전 김중청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립의 무리들이 퇴계 선생의 도통이 월천에게 전해졌고 월천은 중청에게 전했다고 한다. 대개 그 전에도 이미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오늘의 이 소행은 이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심하도다. 소인배의 허물이여!⁹³

들으니 봉화의 서원에서 9월 5일 퇴계 선생을 봉안하고 월천을 종사한다고 한다. 이는 모두 김중청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원장 금학고가

91 『구전집』, 『연보』 〈九年己巳 先生六十四歲 六月十三日〉, “先生文章經術 俱爲儕流所先 雅有經濟之志 遭遇昏朝 不得有所展布 而改玉之後 又爲飛語所中 先生觀象玩占 優游田舍 教授生徒 樂而忘憂 鄭文肅公每歎經席不得與先生同升 金沙溪長生常服先生禮學不可及云”; 같은 책, 『부록』 〈行狀[李光庭]〉, “鄭文莊公每恨經席不與公同登 而金沙溪每服公論說禮經而相疑難 以爲不可及云.”

92 위의 책, 『跋[金是瓚]』, “當時士友月朝月門士 輒先僕指公.”

93 『계암일록』, 〈1612. 2. 13〉, “況李笠輩 以先生道統 傳之月川 月川傳之中清 盖自前日 已有此言 今之所爲 不過如此而已 甚矣小人之尤也.”

통문을 내어 각 읍의 향교와 서원에 경제적 도움을 청하였다고 하니 더욱 무리한 것이다.⁹⁴

퇴계를 모신 서원은 영천·안동·예안 세 고을로서 옛날부터 본디 있었던 것이다. 그 밖에 뒤따라 세운 것들은 혹 선생과 평소에 인연이 있었거나 혹은 흠모하여 정성을 다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창해서원은 김증청의 본 뜻이 선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인 월천에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숭복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선생을 빙자하지만, 월천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말은 비록 종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월천이 주벽이다.⁹⁵

비판적 언급이지만 이를 통해 보면 월천계나 서애계가 모두 공통적으로 월천의 도통을 김증청이 잇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의 활동에서도 김증청은 월천을 가까이 모시고 학문을 이어갔으며, 영지산과 청량산에 직접 모시고 다녀 왔다. 예조좌랑으로 재직시 월천의 도산서원 종향을 주도하였으며, 봉화에 퇴계와 월천을 모시는 창해서원의 설립을 주도한 명실상부한 월천계의 적전이었다.

한편 월천 학맥이 지역에서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김증청은 말년에 구미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활동으로 『구전선생문인록』⁹⁶에서 보이듯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문인을 거느리게 되었다.⁹⁷ 제자들

94 위의 책, <1617. 8. 17>, “聞奉化書院 將以九月初五 奉安退溪先生 從祀月川 皆金中清之所弄也 院長琴學古 通文乞貨物於各邑鄉校書院 尤無理.”

95 위의 책, <1617. 9. 8>, “夫以先生書院 榮安禮三邑 自昔固有 而其他追建者 或于先生有平日之緣 或出於欽慕而致誠 至若昌海 中清本意不在先生 只在於其師月川 而慮人心不服 借先生憑藉 而歸重月川 月川雖名從祀 其實主也.”

96 『구전선생문인록』은 별도의 책자로 고서상에서 판매된 적이 있다. 동일한 내용을 적은 것이 『국역 구전선생문집』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의 분포를 보면 봉성금씨·영천이씨·반남박씨·영양남씨·안동권씨·원주변씨·아성송씨 등 봉화의 특정 집안 인물들이 일괄적으로 문인록에 등재된 경우가 다수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봉화·영주·예안·순흥·안동 등 경상도 동북부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다.

〈표 2〉 구전선생문인록

	이름	자	본관	거주	이력	비고
1	琴以古	靜如	鳳城	奉化	生隆慶辛未, 生員, 僉知 應時 子	先生 妹弟
2	李光洽		永川			
3	李榮係	重吉	永川		說書 笠 子	
4	朴 燁	明甫	潘南		入格	
5	南錫圭		英陽		入格	
6	權 欖	伯涉			入格	
7	權慶蘭	子間	安東	奉化	生壬午, 入格	
8	琴 援	道濟	鳳城		生萬曆壬午, 生員	
9	金益淸	而敬	安東	奉化	生萬曆壬午, 勵節校尉	
10	李時藹					
11	金世鳴	善叔	英陽		奉事 介臣 子, 生萬曆戊午, 入格	
12	李大培		延安		入格	
13	李 菖	馨閔	永川		護軍	
14	琴尙古	賁如	鳳城	奉化	生萬曆癸酉, 將仕郎	
15	權 檢				入格	
16	權在璿		醴泉		入格	
17	權在璣	齊仲	醴泉		入格	
18	朴 燧	陽甫	潘南		通訓	
19	琴友古	穆如	鳳城	奉化	生萬曆甲申	
20	琴純古	樸如	鳳城	奉化	友古 弟, 生萬曆丁亥, 生員	

97 월천의 제자 가운데 지역에서의 강학 활동으로 다수의 문인이 있는 이로는 湖陽 權益昌(1562~1645)을 들 수 있다(『湖陽先生門人錄』, 87명).

	이름	자	본관	거주	이력	비고
21	黃有文	汝郁	平海	禮安	入格	
22	黃有章	汝貞/時發	平海		有弟, 入格	
23	琴大有		鳳城		僉知	
24	琴大遂	亨伯	鳳城		生萬曆丙子, 生員	
25	琴信古	孚如	鳳城	奉化	生萬曆丙子, 訓導	
26	朴 燾	晦而/晦甫	潘南	奉化	號 梅巖, 生壬辰, 生員	
27	李振南	偉仲	花山	奉化	生壬辰, 僉知	
28	琴是修	身之	鳳城	奉化	以古 子, 生萬曆壬辰, 虞侯	
29	宋大健		冶城	榮川	訥翁 碩忠 玄孫, 同知	
30	宋大德		冶城	榮川	號 屏巖, 副護軍 福綏 孫, 贈左承旨	
31	金 塾		宣城	榮川	知事	
32	李時純	閔若	原州		號 晚闇, 生員 澤 子, 幼學 東溟 金世濂 後學 先生, 先生 孫壻, 文都事	李光庭 祖父
33	李時謙		全州	安東		
34	邊有翰		原州	安東	號 鶴阜, 副正 鎰 子, 癸巳 生	
35	李 葳	師聖	永川	榮川	號 太白/天遊子, 艮齋 德弘 子, 翰林	
36	權 赫		安東		松巢 孫, 入格	
37	尹希賢	國輔	襄陽	安東		
38	李曾孝	學可	眞城	安東	號 磨峯	
39	權 喆		安東		赫 弟	
40	權 杼					
41	金 淮	巨源	安東	義城	生員	호는 敬菴
42	金 塗	汝精	宣城	順興	號 孤山/梅鶴堂, 生萬曆丙辰, 孝誠出天, 天啓乙丑別試及第, 興海郡守	
43	李 垓	汝瞻	羽溪	順興	濟用監正 孝鱗 子, 文科, 郡守	
44	琴是理	之性	鳳城	奉化	是修 弟, 生萬曆甲申	
45	趙任道	致遠/德勇	咸安		號 澗松, 立巖 埴 子, 生萬曆乙酉, 師傅, 佐郎	
46	金柱明	光夏	安東	奉化	鳳節校尉 益清 子, 生戊申, 享年八十五, 護軍	
47	琴是胤	之嗣/似之	鳳城		是理 弟, 生萬曆己亥	
48	邊 銓	字平	原州	奉化		
49	權 鈞					
50	權和重		安東		慶蘭 子, 入格	

	이름	자	본관	거주	이력	비고
51	申弘望	望久	鵝洲		號 孤松, 贈史曹參判 之悌 子, 生萬曆庚子, 同副承旨	
52	南亨會	貳元	英陽		號 塔窩, 錫圭 子, 生萬曆丁未, 生員	
53	琴世謙	搦吉	鳳城		生員 援 子, 生萬曆丁未, 進士	
54	琴是律	子聲	鳳城	奉化	尙古 子, 生萬曆庚子, 入格	
55	琴是呂	子行	鳳城	溫溪	判官 胤古 子, 生萬曆辛丑	
56	趙咸世	顯甫	咸安			호 五宜軒
57	趙崇周		全州			
58	權 鎰					
59	柳尙謙		全州			
60	李 錫	益精	延安		大培 子, 生員	
61	柳尙懿	致遠	全州		生己酉	
62	柳尙時	時裁	全州		生己酉	
63	南亨久		英陽		亨會 弟, 入格	
64	張 徽					
65	柳亨立	時遇	全州		生員	
66	權 霖	善行	安東	安東	冲齋 權愷 后, 參奉	
67	洪 鑽		南陽			
68	柳貞立		全州		亨立 弟, 文科, 縣監	
69	琴亨達	叔夏	鳳城		生萬曆丙辰	
70	琴致謙	光吉	鳳城		是胤 子, 生萬曆丙辰 進士	
71	李 慕	孝思	永川		良齋 德弘 子, 先生 婿, 修撰	
72	李榮復	初吉	永川		入格	李命弘-蒙子
73	裴淑全		興海		翰林 龍古 子	
74	琴尙協	汝成	鳳城		見龍 子, 生萬曆丙申, 壽階 嘉善, 護軍	
75	李榮國	泰吉	永川		入格	李福弘-衡子
76	琴大雅	正始	鳳城		生丁巳, 生員	
77	琴益謙	子受	鳳城		司宰監正 夢祥 子, 生萬曆己丑, 入格	先生 孫婿
78	琴大振		鳳城		入格	
79	李愼承	可述	永川		進士	
80	權尙載	德輿	安東		進士	
81	南孝恪				入格	
82	宋大年		冶城	榮川	生員	
83	鄭承先		東萊		入格	

* 『구전선생문인록』에 수록된 83명의 문인 기록에 필자가 일부 내용을 보충하였다.

김중칭에 대한 추모사업으로 1669년(현종 10) 금대유琴大有·박돈朴燾 등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구전이 강학하던 봉성鳳城의 반은동槃隱洞 서재 아래에 있는 골짜기 송추松楸 밑에 반천정사槃泉精舍를 건립하였다.⁹⁸ 묘우廟宇 3칸, 강당講堂 8칸이었다. 김중칭이 북경에 갔을 때 공자의 화상을 구해왔는데 1614년 서재에 봉안하였다가 1669년 정사가 완성되자 강당의 북쪽 벽에다 옮겨 봉안하였다. 1677년에는 사림에서 구전의 위판을 반천정사에 봉안하였다. 이후 서원 창건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787년에는 영천榮川(榮州)의 이산서원伊山書院과 순흥順興의 향교 명의로 인근 각 서원으로 승원陞院 통문을 돌리기도 하였다. 지역에서 거듭된 승원 요청에 따라 1831년(순조 31) 봄 마침내 반천서원槃泉書院을 설립하였다.⁹⁹ 이 때 각 문중과 서원에서는 서원 건립에 따른 경비를 위해 부조금을 냈었다. 그러나 1870년(고종 7)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반천서원도 훼철되었다. 구전의 후손들과 지방 유림들이 유계儒穢¹⁰⁰를 결성하여 세익을 돈독히 하고 구전의 유지를 받들었다.¹⁰¹

김중칭의 글로 『부경별장赴京別章』 3책과 『강원일록講院日錄』 1책이 남아 있다. 『부경별장赴京別章』은 원래 상하 2첩으로 장정되어 있었으나 후일 상·중·하 3책으로 새로 장정하였다. 일부 내용이 축약되어 문집의 『연행

98 『槃泉創建錄』. 반천은 『詩經』 衛風 考槃의 산골짜기에 음막을 이루었다는 구절에서 가져왔다.

99 『槃泉書院陞號時實記』.

100 『槃泉楔帖』, 〈序[權相文]〉(『국역 구전선생문집』, 『부록』 소수).

101 2004년 봉화 유림들이 선현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송천서원·반천서원·백록리사 등 3개 원사를 한 곳에 통합 복원하고 그 이름을 松麓書院으로 명명하기를 결의하였다. 이듬해 착공하여 2007년 9월 20일 개원하였는데 구전 김중칭 등 지역 출신 10현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유증』에 수록되어 있으나 후순가에 소장된 것은 축약되기 전의 원본이다.

『강원일록講院日錄』은 1615년(광해군 7) 3월 10일 세자시강원 문학에 임명되면서부터 이듬해 신안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10월 30일까지의 일기다. 김중청이 당시 대북정국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밀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 주고 있다.

한편 김중청의 시문은 문인 탑와塔窩 남형회南亭會가 김중청의 손자 김양열金楊烈과 함께 편집하여 10여권으로 만들어 이동표李東標(1644~1700)에게 교정을 부탁하였다. 이동표의 사망으로 작업이 중지되었는데 김중청의 외현손外玄孫인 늙은訥隱 이광정李光庭(1674~1756)이 1744년 후손인 김이명金爾銘, 5대손 김태운金泰運 등과 함께 다시 수정하고 행장과 연보 등을 첨부하여 6권으로 편차하였다. 그럼에도 인쇄에 넘기지 못하다가 후손 김영택金榮宅 등이 유고를 바탕으로 김시찬金是瓚의 교정을 거쳐 1829년 김정균金鼎均(1782~1847)에게 서문을 받아 1831년 경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하였다. 인쇄본은 원집 6권·연보·부록·별집(『조천록朝天錄』)¹⁰² 등, 합 4책으로 되어 있다.

102 북경으로의 사행 기록이다. 원래 조천 사적으로는 일록과 문견사건 두 종류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함께 편집하면 중복되는 것 같아 현재 문집에 남아 있는 『조천록』의 기록으로 만들었다. 이 일을 주관한 이는 李光庭이었다(『구전집』 별집, 『조천록』〈識李光庭〉). 『조천록』의 끝에는 사행과정에서 목도하였던 10가지의 문체점의 시정을 요청한 글이 남아 있다(같은 책 별집, 『조천록』〈聞見事件末端獻說〉).

5. 맺음말

구전 김중청은 퇴계학파의 재전 제자로, 조성당 김택룡과 함께 월천 조목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월천계의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추숭사업으로 1614년 도산서원에 종향을 이루어내고 이를 예천의 정산서원과 봉화의 창해서원으로 확장시키었다. 그러나 중앙에 진출한 월천계의 친대북적인 정치 성향으로 인해 향촌에서는 차츰 고립되어 갔다.

이 때 김중청은 김택룡과 함께 월천계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였으며, 문집 간행과 종향 추진 등 월천 추숭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김중청은 청년 시절 임진왜란을 맞아 의병을 일으켜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으며, 중년과 장년 시절에는 중앙 정계에서 활약을 하였으며 북경에 서장관으로 가서 견문을 넓히기도 하였다. 학문적으로는 퇴계 이항을 사숙하였으며, 소고 박승임·월천 조목·한강 정구를 스승으로 모셨다. 이외에도 김중청은 회곡晦谷 권춘란權春蘭과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顛을 스승으로 모셨다.

구전 김중청의 인생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친 이는 월천 조목이었다. 월천 조목은 스승인 퇴계 이항의 학문을 조술하였으며, 평생 옆에서 모셨다. 스승이 사망한 후 동문 제자들이 중앙 정계로 진출할 때 예안에 머물면서 스승을 위한 추송 작업을 주도하였다. 이에 월천의 제자들은 스승인 월천의 언행과 행적이 퇴계 학맥의 수문首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퇴계 학문의 본산인 도산서원에 월천의 단독 종향을 관철시켰다.

월천의 추송과 종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간 제자 가운데 중앙 정계에 재직하면서 당시 집권세력인 대북정권과의 협력을 통해 일을 이끌어 나간 이가 구전 김중청이다. 이에 따라 비록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언급이지만 퇴계의 도통이 월천 조목에게 전해지고 월천의 학맥이 구

전 김중청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월천계에서 구전이 차지하는 위상이 수문의 위치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실제 활동에서도 김중청은 조목을 가까이 모시고 학문을 이어갔으며, 말년에는 구미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활동으로 월천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문인을 거느리고 있다. 김중청은 명실상부한 월천계의 적전이자 월천계의 학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김중청은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대북정권에 협력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김중청 자신이 남긴 기록에는 북인 정권을 그렇게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김중청은 월천의 도산서원 중향 과정에서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친북인정권의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그다지 북인정권에 밀착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츰 부포의 봉화금씨, 한곡의 예안김씨 등과 함께 차츰 대북정권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김중청에 대한 지역에서의 학맥의 계승은 계속 이어져 1669년 반천정사 건립과 1831년 봄 반천서원 설립으로 나타났다. 월천계가 대북정권의 붕괴 이후 지역에서의 기반은 적지 않게 퇴락하였으나 김중청의 반천서원 제향에서 보이듯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월천계 학맥의 동향과 전승은 여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학적 과제이다.

• 2017. 06. 15 : 논문투고

• 2017. 07. 06 ~ 07. 17 : 심사

• 2017. 07. 21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참고문헌

- 『溪巖日錄』
『光海君日記』
『苟全先生講院日錄』(김세현 역, 반천서원 복원 추진위원회, 2007)
『苟全先生文集』(조명근 역, 苟全先生文集國譯重刊推進委員會, 1999)
『都監同苦錄』
『東岡先生全書』
『慕堂日記』
『槃泉書院陞號時實記』
『槃泉稷帖』
『槃泉創建錄』
『赴京別章』(조명근 역, 한국국학진흥원, 2004)
『善迂堂先生逸稿』
『蕭阜先生門人錄』
『嘯阜集』
『永川李氏族譜』
『月川先生門人錄』
『月川集』
『遊院錄』
『仁祖實錄』
『丁巳司馬榜目』
『操省堂日記』
『鶴沙集』
『湖陽先生門人錄』
『檜淵及門諸賢錄』

- 권오영, 「월천 조목의 언행과 학문성향」, 『국학연구』 28(한국국학진흥원, 2015)
- 김성우, 「광해군대 정치 지형의 변동과 경상도 예안 사족들의 대응」, 『역사학보』 226(2015)
- 김세현, 「구전 김중청공을 통해 본 임진란과 복구활동」, 『봉화지역의 임진란사 연구』(임진난정신문화선양회, 2016)
- 김형수, 「17세기 초 월천학단과 예안지역사회의 재건」, 『민족문화연구』 65(2014)
- 박현규, 「김중청의 『조천록』과 부정적인 허균 모습」, 『열상고전연구』 22(2005)
- 박현순,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서인범, 「김중청, 『조천록』의 사료적 가치」, 『이화사학연구』 51(2015)
- 서정문, 「퇴계집의 초간과 월천 서애 시비」, 『북악사론』 3(1993); 「조선 중기의 문집편간과 문파형성」(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설석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필사본 월천선생문집 해제」, 『국학연구』 5(한국국학진흥원, 2004)
- 우인수, 「조선 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2013)
- 이상현, 「월천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 논의」, 『북악사론』 8(2001)
- 이수건,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학맥」, 『한국의 철학』 23(1995)
- 정만조, 「월천 조목과 예안 지방의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 28(2000)
- 조지형, 「선오당 이시의 창작 맥락과 양상」, 『한국학연구』 37(2015)
- 최은주, 『보물은 오직 청백뿐, 안동 보백당 김계행 종가』(예문서원, 2013)

Abstract

The Trend of the Wolcheon Groups of Toegye School and Activities of Kim Jung-cheong in the Early Years of the 17th Century

Park, In-ho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ctivities of Kim Jung-cheong, who was the best pupil of Wolcheon Jomok in the trend of Toegye School in the early years of the 17th century.

Gujeon Kim Jung-cheong (1567~1629) is a descendant disciple of Toegye School, who represents disciples of Wolcheon Jomok groups with Joseongdang Kim Taek-lyong. Wolcheon's disciples thought that the words and conduct of the master could be the best pupil of the Toegye academic stream. Thus, in 1614, Wangcheon was enshrined the sole sacrificial rites among the disciples of Toegye in Dosanseowon, the memorial hall only for the great scholars Toegye. It was extended to Jeongsanseowon located in Yecheon and Changhaeseowon located in Bonghwa. However, due to the pro-Daebuk political propensity of Wolcheon groups entering the government officials, it gradually became isolated in the country society of the Yeongnam Region.

Kim Jung-cheong led the movement for worship and sacrificial rites of Wolcheon in cooperation with Daebuk regime. From this role, although it is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there was a saying that Wolcheon is a representative of the Toegye's scholarship and Kim Jung-cheong is a representative of the Wolcheon's scholarship. Wolcheon's academic stream was led by Kim Jung-cheong. In actual activity Kim Jung-cheong succeeded Wolcheon's study. In the last years, a lecture activity centered on Gumidang has the largest number of scholars among Wolcheon's disciples. It can be said that Kim Jung-cheong is an appropriate translator of Wolcheon groups and a representative of Wolcheon groups scholarship.

However, Kim Jung-cheong was showing a tendency to cooperate with the Daebuk regime to reach Wolcheon's the sole sacrificial rites among the disciples of Toegye in Dosanseowon. After this problem was solved, he did not show much affection to the Daebuk regime. Rather, he along with Bonghwa Geumssi lived in the Bupo and Yean Kimssi lived in the Hangok was gradually away from the Daebuk regime. Wolcheon groups has undergone a considerable decline in the Yeongnam area since the collapse of the Daebuk regime. As Kim Jung-cheong was enshrined in Bancheonseowon in 1831, the learning of Wolcheon groups was not completely gone. The trend and tradition of the Wolcheon groups academic stream in the country society are still an academic task that needs to be examined.

Key words

: Kim Jung-cheong, Jomok, Kim Taek-lyong, Daebuk regime,
Toegye School